

# 골방에서 나와 거리로!

동성애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투쟁 속보 3호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동지 여러분.

저희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 협의회(동인협)는 노동자 동지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가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이 땅의 2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사장들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하지 않던 정부와 사장들이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책임이 모두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인 양 호도하며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장들과 정부의 위선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파업의 정당성은 이전까지 자신있게 나아가지 못했던 많은 부문의 노동자들과 중간계급들을 노동자들의 시위대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 업종, 사업장, 성별, 피부색, 숙련정도, 그리고 성적지향(동성애, 이성애) 등 무수히 많은 작은 부문으로 잘려지고 나뉘어져 왔습니다. 사장들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근무조건 차이와 외형적, 성적 차이들을 이용하여 서로가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선거때만되면 지방색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자와 남자의 일을 나누어서 파업하는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남성노동자들이 파업할 땐 “여우같은 마누라” 논리로 노동자들의 발길을 잡아매었습니다. 이 뻔입니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이 나라 노동자들의 실업과 범죄를 유발하는 존재라는 악선전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단체들의 대표들을 강제추방시키려 하며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깨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사장들과 정부의 “분열시켜 지배하라!”는 격언을 박살내는 방법은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사장들과 정부에 맞서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의 대다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동성애자라고 당당히 밝힌다면 아마 정리하고 대상 1호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지배자들이 끊임없이 동성애자들을 비정상이고, 에이즈 전염균이고, 변태들이고, 사회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동성애자 동료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장들에게 해고된다고 해서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외하곤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차별받는 이유는 그 차별을 통해 마땅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노동자의 임금의 55%만을 받도록 강요받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것은 사장들과 정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보수적 심리를 자극할 때마다 들먹이는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하며 애나 키워라!”는 생각에 동성애자들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굴종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높이며 잃어버린 권리들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압적인 조건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일수록 처음부터 자신감있게 투쟁에 동참하기는 힘듭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차별적인 사회조건들 때문에 여성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있게 떨쳐나간 노동자들이 이런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연대해 준다면 억압에 대한 분노는 노동자 투쟁의 또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들과 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행동을 고무해왔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억압들을 이해하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한다면 우리의 힘은 그만큼 커질 것이고 정말 한 줌 밖에 되지 않는 사장과 정부의 분열지배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알림방

1. 무지개 깃발은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선 5대양 6대주의 동성애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2.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매주 일요일 7시 신촌 쇼너(393-3069)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문의 → 연 호 수 (012·849·1191)
3.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인 친구사이(3141-7942), 여성동성애자 인권모임인 끼리끼리(363-7213), 대학동성애자협의회, 하이텔 또사모(go sg172), 주한외국인여성동성애자모임인 사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집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세력은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이 사회를 진정으로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임을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공돌이, 공순이라 부르며 자기 비하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동자들이 단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삶의 조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87년 이후 계속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러한 자기비하를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라는 말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교사, 화이트 칼라, 전문직 종사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에 대한 자각을 하고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당연하게도 이 사회에 만연해있는 온갖 편견과 억압에 맞선 싸움을 고무합니다.

예를들어 95년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출입국 관리국 직원들의 체포, 추방 위협도 무릅쓰고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병원노련 여성 노동자들은 '환자들 다 죽인다'는 정부와 언론의 악선전을 반박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여자는 살림 잘하고 애 잘키우면 되지 밖에 싸돌아 다니면 안된다'는 여성 차별적 생각들에도 맞설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그 어떤 남성 노동자도 가두시위 대열을 방어하기 위해 돌을 깨는 여성 노동자들을 보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끔찍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러한 편견을 깰 만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겁쟁이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당당히 밝히며 집단적인 투쟁에 연루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파업에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참여했던 소수의 남,녀 동성애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루하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첫째날부터(마로니에 집회) 노동자들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았고, 우리의 유인물을 열심히 읽어주었고, 거리행진 할 때는 같이 행진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동성애자 연대하여 노동악법 박살 내자!"는 구호를 외쳐주기도 했습니다. 한 사무직 노동자는 우리의 인터뷰에 응해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편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환대에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둘째날 종묘공원의 입구 인도(人道)에서 "노동법, 안기부법 전면 백지화"라는 릴레이 피켓을 들고 전경의 코 앞에서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무지개 깃발과 동인협회의 명의를 들어간 피켓은 우리에게 동성애자로서 자부심을 심어주는 우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 사진기라면 벌벌떨던 동성애자들이 각 언론사의 플래쉬 앞에서 당당한 자세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명동성당을 막고 있는 경찰저지선을 향해 깃발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뛰어가는 우리에게 처음엔 호기심어린 눈길을 보내다가도 이내 환호성과 박수를 치던 주변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당당할수록 편견도 쉽게 깰 수 있음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신감은 몇몇 집회 경험 많은 사람들의 관록(?)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열엔 집회라는 곳에 난생 처음 나온 동성애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집회에 있는 스스로를 낮설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자 투쟁은 수많은 부문의 다양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고, 동지애를 느끼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지개 깃발도 투쟁의 다채로운 그림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방에서 나와 거리로!" "천천히 큰소리로 말하라! 나는 당당한 동성애자다!" 라는 60년대 미국 스톤월 동성애자 봉기의 슬로건은 이제 이 나라에서도 노동자 투쟁과 연대하여 우리가 외쳐야 할 슬로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동성애자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등)의 자신감과 투쟁 의지들이 더욱더 확산되고 고무될 때만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완전 백지화 시키는 우리의 총파업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